류연산칼럼집

바보들의 천국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傻瓜天国：朝鲜文 / 柳燃山著. —北京：民族出版社，2009. 5
ISBN 978-7-105-10055-2

Ⅰ. 傻… Ⅱ. 柳… Ⅲ. 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Ⅳ. I 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 第067690号

民族出版社出版发行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http://www.mzcbs.com
北京市迪鑫印刷厂印刷　各地新华书店经销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北京第1次印刷
开本：880毫米×1092毫米　1/32　印张：12.375
字数：334千字　定价：26.00元
ISBN 978-7-105-10055-2 / I · 2041(朝216)
(朝文室电话：58130534；发行部电话：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 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2009년 5월 제1판 2009년 5월 북경 제1차 인쇄
절지: 880mm×1092mm 1/32 전지: 12.375
자수: 334천자 값: 26.00원
ISBN 978-7-105-10055-2 / I · 2041(조 216)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제1부 인생편

성(城) · 2
생 각 · 4
암 종 · 6
상 극(相极) · 8
무와 유의 차이 · 10
궤변 3부곡 · 12
새와 물고기 · 13
노 예 · 15
자 유 · 16
공 포 · 18
정 답 · 20
개척자와 추종자 · 22
진리가 진리인 리유 · 23
믿 음 · 25
권력자와 문인 · 27
강 요 · 29
큰 고기는 큰 물로 · 31
선택이 없는 인생 · 33
인생은 산행길(1) · 35
인생은 산행길(2) · 38
인생은 산행길(3) · 39
등 산 · 41
돈 · 43
재직과 퇴직 · 45

47 · 옷과 인격
49 · 령혼과 육체
51 · 균 형
53 · 욕 심
55 · 인격자
57 · 정의와 비정의
58 · 인간의 본성
60 · 나 는?
63 · 시 야
65 · 선택과 노력
66 · 행 복
68 · 성공의 비결
69 · 죽음의 의미
71 · 구 걸
73 · 반성과 참회
74 · 감 사
75 · 겸간(兼看)과 겸청(兼听)
76 · 타락 염세 행복
77 · 회 상
79 · 벌거벗음
80 · 명 예(1)
81 · 명 예(2)
82 · 이쁨과 아름다움
84 · 그 릇
86 · 운 수
87 · 가면구
89 · 고고성
91 · 확인과 긍정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운 명 · 93
영원한 친구 · 95
레 루 · 97
기차길의 계시 · 99
다빈치의 할머니 · 101
부자와 빈자 · 103
나를 살리는 방법 · 105
귀신과 천사 · 107
그림자 · 109
빛 · 110
과 정 · 111
술의 궁합 · 113
장애의 의미 · 115

제2부 사회편

계급사회의 본질 · 118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 · 120
수상자=둘러리? · 122
고속의 법칙 · 124
돈=능력 ? · 125
불야성 · 126
서울 지하철 · 128
칭 찬 · 130
선글라스 · 132
서비스 · 134
권 력 · 135
화장실문화 · 137

139 · 각주구검(刻舟求劍)
141 · 붕우(朋友)와 붕당(朋党)
142 · 벽 돌
144 · 층계와 엘레베터
146 · 어린이들의 지옥
148 · 음식의 의미
150 · 고양이 앞의 쥐
151 · 쥐
153 · 선 거
155 · 축제의 의미
157 · 삼 성(三性)
159 · 몸 값
161 · 녀성과 이름
163 · 수자의 감옥
165 · 광고 허위도(广告虛伪度)
167 · 한치보기
169 · 꽃다발과 영예
170 · 구두쇠
172 · 유한과 무한
174 · 식탁구호
176 · 연길의 풍경

제3부 환경편

178 · 생 명
179 · 해란강의 고뇌
181 · 과욕은 금물
183 · 일회용

우주의 꿈 · 185
련 꽃 · 187
록색상표 · 190
제3의 길 · 192
인류의 교훈 · 194
황금돼지 · 196
독약이 된 인삼 · 198
땅 · 200
랭장고 · 201
손발의 분리 · 203
아스팔트길 · 205
인간같은 쓰레기 · 206
괴 물 · 208
물사랑 · 210
연기의 향연 · 212
얼 음 · 214
일심동체 · 216
수면제 · 217
변 화 · 219

제4부 풍속편

축 복 · 222
주 례 · 224
뿌 리 · 226
묘 비(1) · 228
묘 비(2) · 230
장례문화(1) · 232

234 · 장례문화(2)
236 · 사자의 비애
238 · 경도릉원의 추석풍경
240 · 고향의 추석풍경
242 · 로씨야의 이색적인 묘지문화
244 · 배부른 홍타령
246 · 파 티
248 · 관 계
250 · 행사의 의미
252 · 만 남
254 · 양복과 한복
256 · 인간교육
258 · 로씨야의 풍경
260 · 남산두부
262 · 합리성과 정감성
264 · 장미와 사랑
266 · 남재녀모(男才女貌)
267 · 사랑과 마음의 거리
268 · 사랑단상
269 · 꽃의 의미
270 · 결혼과 리혼
272 · 만남의 본질
274 · 결혼단상(1)
276 · 결혼단상(2)
279 · 브레이크
281 · 일생과 일회
283 · 사후 50년

제5부 력사편

대우 치수의 도 · 286
탁상공론(卓上空论) · 288
인재(人才)와 인재(人灾) · 290
노예와 자유 · 291
바보들의 천국 · 292
선왕과 현사(1) · 294
선왕과 현사(2) · 296
만 금 · 298
토끼와 거북 · 299
이발 빠진 호랑이(우화) · 301
쥐와 쥐약 · 303
양과 이리 · 305
구세주 · 306
하늘탓 · 310
장님의 코끼리구경 · 312
우는 아이 젖 주기 · 316

제6부 추억편

마음의 리모컨 · 320
나의 명함장 · 322
보온병 · 324
모 래 · 326
계란과 닭 · 328
어미와 자식 · 330
천상천(天上天) · 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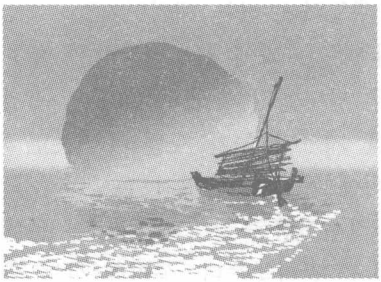
333 · 모자람의 미
335 · 생로병사
337 · 팽 이
339 · 조화와 생화
341 · 정 신
343 · 나루터와 나루배
345 · 희망과 실망
347 · 꿈
349 · 나무가 오래 사는 리유
351 · 참대꽃
353 · 욕 심
355 · 락 엽
357 · 만 남
359 · 자 대
361 · 시대의 락오자
363 · 해와 달
365 · 꿈과 해몽
367 · 예술가의 금물
369 · 《대장금》
371 · 넘쳐남의 불행
373 · 코스모스가 주는 계시
375 · 음 악
377 · 부모의 사랑
379 · 선물과 례물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

제1부 인생편

진리가 진리로 될수 있는 리유는
단 하나 진리가 진리가 아닐수도
있다는 가능성때문이다.

—진리가 진리인 리유



성(城)

인조위성이 지구를 찍은 사진에서 볼수 있는 인간의 제조물은 중국의 만리장성과 애급의 금자탑이란다. 금자탑은 알고보면 무엇인지 알지만 모르고보면 작은 점에 불과하다. 웅위롭고 장엄한 만리장성은 첫눈에 중국인의 고대창조물임을 대뜸 알아볼수 있다.

"우리는 세계 력사상 제일을 창조한 민족이다. 장성을 쌓은 민족, 우리는 5,000년 유구한 력사와 위대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얼마나 가슴뿌듯하게 하는 해석인가?

옛날 중화민족은 나라에다 만리장성을 쌓고 군사를 주둔시켜 짐승 한마리도 넘나들지 못하게 했었다. 집집마다 담장을 쌓고 대문에 빗장을 지르며 누가 오면 문틈으로 가만히 내다보고 낯선 사람이면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사람마다 마음에다 도덕규범에 의한 정신적성을 쌓고 기타 다른 문화는 외면하였다.

성은 안과 밖을 갈라놓는다. 성안에 사는 사람은 성밖을 경계하기마련이다. 언제나 밖에서 침입해올가봐 성문을 굳게 닫고 개미 하나 기여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킨다. 성안의 규범, 도덕, 풍속을 엄격히 준수한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성안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이다.

그러나 성밖에 사는 사람들은 시야가 닿는 곳까지 사유의 공

간이 무한하다. 그들은 개척정신의 소유자이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것을 받아들인다. 자기하고 다른것에 대해서도 타협적이다.

그러므로 결국 성은 늘 성밖의 사람들에 의해 정복되기마련이다. 만리장성이 칭키스칸에 의해 무너지고 누르하치에 의해 무너지지 않았는가?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원과 청 또한 스스로 성안에 갇힘으로써 종당에 멸망의 비운을 면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만리장성은 력사의 교훈이다.

담장은 수치의 상징이다.

낡은 도덕규범은 수쇄이다.

한국 성공회대학교 신영복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진정한 해방은 모든 벽의 해체입니다."

2005년 9월 12일

생 각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물론 동식물도 나름대로 생각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간처럼 자유자재로 생각을 언어로써 표현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말로써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글로써 상호간에 시공간을 뛰여넘어 사상들을 공유할수 있다는 그것때문에 인간은 동식물보다 뛰여난 존재로 될수 있었다.

생각이란 시간에 따라 다르고 환경에 따라 다르고 또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 옛사람이 어찌 오늘의 과학문명을 론할수 있고 미국사람이 어찌 요즘 중국인들의 구두어로 고정된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에 대해 중국인과 같은 시각을 가질수 있겠는가?

장점도 뒤집으면 단점이 된다.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은 글쓰는것이 장점이다. 소설이 재미는 있지만 소설시장이 말라버린 요즘 세월에 작가의 창작기교는 돈벌이를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있다. 철학가의 장점은 정연한 도덕적론리이다. 그러나 그의 단점은 실천의 결여이다. 정치인의 장점은 세상을 뒤바꾸는 권력이다. 그러나 단점은 인정이 없는 랭혹함일것이다.

한 사물이나 한 인간이나 한 사건에 대해 여러 시각에서 모두 보고 나름대로 평가해야만이 진실을 밝혀낼수 있다. 그런데 수직사회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른의 말이 어떻게 화려하든 어른의 술수가 어떻게 뛰여나든 그 실질은 "생각하지 말라. 생각은 내가 하마!"이다.

김학철선생은 생전에 그러한 사회를 머리에 숱한 몸뚱이가 붙은 하나의 괴물에 비유한바 있다.

2005년 11월 13일

암 종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먹은 음식은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그 영양분을 걸러내고 찌꺼기는 대장으로 보내 체외로 배출시킨다. 위에서 새로 생산된 영양분은 60개의 세포에 고루 분배되어 육체는 건강을 유지해가게 된다.

어느날 갑자기 욕심 사나운 세포가 생겨서 다른 세포들과 나누어먹어야 할 영양분까지 빼앗아 먹어치운다. 그리하여 육체의 균형이 파괴된다. 이른바 암에 걸린것이다. 이 욕심많은 세포를 일컬어서 암종이라고 한다.

암종이란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세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다른 세포들을 남냠 맛있게 잡아먹은 암종이 나날이 비대해져서 결국 육체의 생명을 정지시킨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는 토장을 하거나 불에 태우는 화장을 하거나 물에 띄워보내는 수장을 하거나 바위에 얹어두는 풍장을 하거나 토막을 내서 독수리에게 먹이는 천장을 하기도 한다. 암종 역시 시체와 함께 땅속에서 썩고 불속에서 재가 되고 물고기밥이 되고 독수리의 한끼 식사가 된다.

욕심 사나운 인간을 일컬어서 암종같은놈이라고 부른다. 사회의 비리와 부패는 암종같은자들의 욕심을 최대한 만족시켜주어 사회를 극빈대립으로 치닫게 만들어 결국 그 사회를 장례지내게 만든다.

此为试读,需要完整PDF请访问: www.ertongbook.com